

크리스마스 썰과 나

글 박용건(에일초등학교 6-5)

결핵은 막대 모양의 결핵균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생기는 병으로 인류 역사상
인간의 생명을 가장 많이 빼앗아간 병이라고 한다.



지난 3학년 겨울방학 때의 일이다. 나는 어머니를 따라 인천에 있는 한 요양원에 다녀온 적이 있다. 조용하면서도 깨끗하고 공기가 맑은 곳이었다.

그런데 그 곳은 일반 환자가 아닌 결핵 환자들만 모여 사는 곳이라고 한다. 어머니께서는 하얀 마스크를 쓰고 안내인을 따라 요양원 안으로 들어가셨다. 나는 나이가 어려서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기다리라고 하셨다.

“결핵균에 감염되기 쉽기 때문에...”

요양원 곳곳에서는 결핵 예방 결핵 퇴치기금 모으기, 그리고 내가 학교에서 구입한 크리스마스 썰 포스터가 붙어 있었다. 나는 그 순간 내 책상 서랍속에 아무렇게나 넣어두었던 크리스마스 썰이 불현듯 생각났다.

어머니께서 면회를 마치고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니

힘이 없어보였다. 가까이 오신 어머니 얼굴을 보니 슬픈 기색이 역력하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어머니 말씀에 나는 많은 것을 느꼈다. 요양원에 계신 할머니 친구분께서는 북한에 가족을 두고 혼자 넘어오셔서 적십자사에서 우리 할머니와 의료봉사 활동을 많이 하셨던 건강하신 분이셨다고 한다. 또 우리 가족은 한가족처럼 여기시며 해마다 크리스마스 카드를 우리 가족에게 잊지 않고 보내주셨던 천사 같은 분이셨다. 그런 할머니가 결핵이라는 무서운 병으로 너무나 고생을 하고 계신다니 내 가슴이 뭉클하였다.

결핵은 막대 모양의 결핵균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생기는 병으로 인류 역사상 인간의 생명을 가장 많이 빼앗아간 병이라고 한다. 아빠의 말씀을 들어보니 예전에는 동네에서 결핵환자를 흔하게 볼 수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요즘은 오늘 방문한 요양원처럼 시설이 좋은 곳에서 치료를 할 수 있다고 하니 그나마 얼마나 다행한 일인지 모른다고 하셨다. 그것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닌 세계적인 '결핵퇴치 운동'의 하나로 1904년 12월 10일에 최초로 발행된 크리스마스 썸의 판매 운동이 커다란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았다.

'내가 하지못해 구입한 크리스마스 썸이 이렇게 큰 도움이 된다니...'

나는 아주 작은 것이 모아지면 큰 것이 된다는 사실을 더욱 잘 알게 되었다.

버스에서 내린 나는 다른 날보다 빠른 걸음으로 집에 도착하자마자 책상서랍 속에 넣어두었던 크리스마스 썸을 꺼내보았다. 그 후부터는 크리스마스 썸에 담긴 소중한 의미를 생각하며 많이 많이 구입해야겠다고 다짐하고, 실천하고 있다. 그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卍

* 이 글은 대한결핵협회와 소년한국일보가 함께한 2006 학생 건강글짓기 현상공모에서 초등부문 최고상을 수상한 작품입니다.